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3호 [루체 제25782호] 주제 106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인 특군상장 조남진동지, 특군중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특군소장 박동규동지를 비롯한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9월 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연구소를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건설하며 현대적인 온실을 도 하나 일파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주변농장을 시험농장으로 전환시켜 주시었을뿐만아니라 끝끝한 제대군인들을 과전해주신것을 비롯하여 농장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펼쳐나신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달려온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연구소와 온실, 수실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육성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목9>호, <밭벼24>호, 수수강변이름 비롯한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일떠선 연구소는 연건축면적이 3,890여㎡이고 첨단설비들을 갖춘 실험생물공학실, 배양실, 원종보관실, 과학토론회실,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연구자들의 연구사업과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침실, 식당, 운동실, 목욕실을 비롯한 문화휴식 시설도 구색이 맞게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층으로 된 연구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며 흠잡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벼, 강냉이, 사탕수수, 목화, 사과, 복숭아, 포도, 대추 등 갖가지 농작물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였다.

현대적인 연구소가 임피섬으로써 이 지역의 변모가 일심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더 좋은 연구성과로 당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곳 농장의 연구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같은 배려를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꾼들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 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조건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논벼, 밭벼, 수수강냉이, 검은강냉이, 사탕갈 등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면서 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연구하는것과 함께 온 나라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남새작물밭에 들어서시며 생산성과 영양기가 늘리울 정도로 높은 남새작물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남새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몹소 남새작

물의 이름을 단백초라는 의미에서 <단백초>라고 명명해주시였다.

<단백초>는 한번 심어 여러번 베어 수확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흙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경작할수 있는 아주 좋은 남새작물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널리 퍼쳐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물결치는 밭벼포전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올해 <밭벼24>호를 과종한 후 60여일간 심한 가물이 들었지만 가혹한 조건에서도 풍작을 거둘수 있게 되었는데 가물건달성이 매우 강한 물결약형의 다수확품종이라는것이 입증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다수확품종인 《정옥9》호를 심은 강녕이밭들에 팔죽같은 이삭들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강녕이밭을 심으면 정보당 13~15t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는데 두벌농사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시였다.

농장에 새로 배속된 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이 부족한 논과 밭들로 이루어진 이곳 농장에서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 정보당수확고를 이전에 비해 4배이상 끌어올림으로써 계획을 못하던 고장이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고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기후종토조건에 맞고 수확량이 높은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려는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당중앙의 시험농장이 역시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16

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제배함으로써 농사에서 종자가 기본이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당일군들이 이 농장을 참관하게 하여 당중앙의 의도대로 종자혁명방침을 결실을 볼 때까지, 알장을 볼 때까지 직접 심스럽게 관찰하자면 어떻게 루팅해야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풍년이 든 농장법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결코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다고, 신심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녕이밭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 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격방항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

육종과 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농장에 네차레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창건일에 즈음하여 인디아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인디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유대에 기초하고있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의 유대와 문화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려들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을것을 진심으로 념원합니다.

인디아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현안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드리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람 나트 코빈드 2017년 9월 5일 뉴델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귀국의 친근한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 복리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2017년 9월 5일 두산베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나는 국경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위대한 민족에게 번영과 행복, 복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다널로 메디나 산체스 2017년 9월 5일 산토 도밍고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민족적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나와 아프리카인민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당신께 가장 훌륭한 축원을 보내며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에브 2017년 9월 6일 바쿠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동풍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되게 확대발전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했것과 나라의 통일발전을 위한 근면한 조선인민의 위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할트마긴 바프톨가 2017년 9월 9일 울란바타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쌍무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했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라흐 알 씨씨 2017년 9월 9일 까히라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했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튀니지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취 카이드 아트 씨씨 2017년 9월 11일 튀니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의 축하를 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두 나라 지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의 쌍무적인 우호 관계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신했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행복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세인 2017년 9월 14일 이슬라마바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인 9월 9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그리고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힘력과 노력에 의하여 쌍무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걸쳐 좋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산 루하니 2017년 9월 18일 테헤란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은 강안이 증오에 치를 면코 전세계가 경악과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날강도 미제가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조선인민의 절멸을 거머잡아 짓밟고 있다.

김정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고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최고의 가장 포악한 선전전고를 공공연히 내뱉은 트럼프놈의 전대미문의 악담은 우리 국가의 막대한 위력을 단증해주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신념있는 결사투쟁을 벌여야 할까를 가늠할 길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히 확정해주고있다.

오늘과 같이 최후를 이바를 드러내고 우리 공화국에 전쟁을 강요해올 날강도 미제의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세상에 유입무인병정로선을 제시한것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을 이끌며 역사에 유례없는 시련을 완강히 돌파해온것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담이 제시한 병정로선의 기치 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달려온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다시금 사무치게 절감하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은 무엇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는것인가.

새로운 병정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 정, 온몸을 다 바치며 미제의 포악한 폭제의 역을 끝장낼수 있는 주체조선의 무인병정로선을 역력같이 마틴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한 찬없는 고마움과 경탄이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지난해 1월 어느날에 있던 이야기가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관들에게 주체조선의 첫 수산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핵무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주시게 된데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지휘관들의 가슴은 전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팔없는 장적과 원죄로 실렸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 찬탄의 목소리,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의 통쾌함에 넘쳐있고 기쁨초창후린 작들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있는것만 같다.

늘라미지팡이 드림프론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하신 핵무력장의 단호한 불피성이 천하를 뒤흔들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성명은 미국의 최후일망에 대한 준엄한 선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집시는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적의 괴지이다.

늘라미지팡이를 불로 다스리고 최악으로 가득한 미국국을 생존불가능지대로 초도화해버린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울보복력이 어떻게 독박하고있는가를 미제야기들은 무는음독마로 뜨고보아야 한다.

미친개 트럼프그와 제끼러들이 끝끝내 이 땅에 핵전쟁의 불기를 올리는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병정의 기치높이 다지고자하는 핵전쟁무력으로 침략과 약의 소금물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자 맞겠다.

본사기자 김성남



농장에 깃든 어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강서구역 청신협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성남

위대성교양을 활발히 벌려

김현국 하단리당위원회에서 당보통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시하게 진행해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를 과다한 단계로 정중에서 당보통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고있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보통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에게 돌아와 해설

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얼마전에 들뜬한 현장에 간 리당위원회는 한 일꾼은 유식지식을 리용하여 당보통 실정에 맞는 위대성교양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신뢰하는 속에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알뜰공양하고 있다. 당원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 최원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전하는 통약산산물

여로부터 정치아름답고 물이 좋아 정수자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통약산지구, 풍치수려한 이곳에 통약산산물공장이 한쪽의 그림처럼 돌았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인 것은 이 공장에서 정수된 물이 통약산산물공장이 평평 풀이제와 인민들을 찾아간다.

우리 인민들이 마실 물을 두고그리도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장군님들의 숭고한 사랑의 자취를 따라 우리는 이곳으로 위대자를 알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밝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맡은 첫인상은 공장이 참으로 산뜻하고 청결하다는것이였다.

반듯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와 갖가지 나무들과 꽃장독들, 아담하고 규모있는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은 첫눈에도 경이 록물였다.

지배인 김동숙동무는 우리를 먼저 혁명사적교양장으로 이끌었다.

혁명사적교양실로 들어서신 순간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물었다.

사건장은 아찔함속치르면서 인민들이 마실 통약산산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건본원이 뜨겁게 언저물었다.

지난해 9월 공장을 찾았을것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사진본원을

보고 또 보시며 선통 감을 읊기 시작하시었다고 지배인은 격정에 겨워 이야기하시었다.

정수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셨으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선 그날은 대한주위가 가슴을 부러던 주제 100(2011)년 1월 20일이였다.

샘물주입기일에 이르러서 자동화된 흐름식생산공장을 따라 원일이 흐르는 샘물들을 흐릿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물맛이 어떤가 한번 보자고 하시었다.

한 일꾼이 부여드린 샘물고추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그 맛을 보시었다.

순간 공장인민들의 가슴은 예이는 듯 하였다. 벼속까지 얼어드는 얼음들의 우위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시신것만도 송구스런것이지 않겠는데 차디찬 샘물도 맛보시니 어찌 그렇지 않으리.

불현듯 일꾼들에게는 해방지후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지나가신 김은에게 밥 한그릇은 데 쪄주어도 할만큼은 주지 못했다는 절체기습 환한의 마음을 찾으시어 농민들의 먹는물문제를 두고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

인민을 하느님처럼 여기신 어비이수령님 그대 보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날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데 물맛이 편찮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었다. 오랜 세월 덧없이 흐르던 통약산의 정수물들이 인민의 제물로 되었고, 그러도 단속하시어 환히 웃으셨었다.

못 잊을 그날의 사진본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오시어 물소 샘물맛까지 보아주시었다고, 이 사진본문만 보아도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절충은 마음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를 할 수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이 사진본문에 늘 마음을 새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매일, 매순간 자각하고있었습니다.》

지배인의 이 말씀에는 공장인민들과 종업원들의 열렬한 진정이 울려다녔었다.

통수수려한 통약산기술이 몇몇이로 일대선 공장의 이름을 《통약산산물공장》이라고 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들에게 맞닿고 절충은 샘물을 먹이시려는 그이의 넉넉한 활짝 꽃피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를 우리는 공장의 여러곳을 밟으면서 뜨겁게 새겨안았을것이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생산공정을 거쳐 제정본질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진열된 샘물병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샘물병들의 물높이가 서로 다른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무심히 여겨오던 그그그마한 차이도 첫눈에 알아보고서 마음 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가 그날 공장인민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의도를 심장깊이 간직하였다고 한다.

어찌 샘물병만이라, 본래보다 낮추어진 통약산공장의 예정현시관들이 서면 조종력에 앉아 생산공정들을 감시조종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하여 주신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듯싶고 새로 보아주시는 의미의 샘물수송차들을 바라보면 맞닿고 절충은 사랑의 샘물을 믿고 인민을 찾아 수도의 중심거리를 달려오도록 하여주시는 은정이 가슴을 울린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쪽

혁명들은기초로볼 수있었다.

이 자랑한 성과야말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만리마산구지대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고귀한 총정의 보 고인것이다.

날의 성과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은것은 이곳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달라보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경사관철해온 나날은 이들이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만리마산의 기술들로 성장의 기틀 자체는 보람찬 파장이었다.

미세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세세책들로나가 거는 어려움은 공경에도 미치지 않는 성과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은것은 이곳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달라보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경사관철해온 나날은 이들이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만리마산의 기술들로 성장의 기틀 자체는 보람찬 파장이었다.

미세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세세책들로나가 거는 어려움은 공경에도 미치지 않는 성과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은것은 이곳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달라보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경사관철해온 나날은 이들이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만리마산의 기술들로 성장의 기틀 자체는 보람찬 파장이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시) 백두의 불리성

류명호

백두의 불리성이
천하를 뒤흔들었다
우주를 휘감은
천군백룡의 노성이
지주로운 미국의 하늘을 재웠다

미국을 통제로 죽음의 악몽속에
치막은
절대무비의 힘

《미국의 늑대미치광이를
만드시오, 만드시오 불로 다스릴것
이다》

이 행성이 만무하는
강권과 불의를 끝장내고
정의와 평화의 새 역사를 펼칠
위대한 선인이
붉은기넘치는 당중앙청사에서
세계를 향해 울려퍼졌다

우리르노바
사랑하는 강도와 인민을 지켜
반미결전의 최전방에 나선신 장군
백도가나수에 빠져드는
이 행성을 구원할 유일한
불세출의 김정은장군

세계는 보고있다
악의 퍼수 미제의 승리를 거머쥔
강대한 조선

이 나라 천만민은
정법의 불벼락 따질 그 순간만큼
분분초초 감광하니
원수적멸의 함성이 퍼져오르는
이 땅에서
총잡은 병사를 따로 찾지 말라!

침략의 아성을 일부러져 뒤트는
백두산호랑이의 노성
지주의 무제가 실려있는
철의 선언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미국의 늑대미치광이
악의 제국은 재가부가 되리라

오, 백두의 불리성으로
서신력자의 어룡이 깃든 미국방면
더는 해가 뜨지 않으니
이 행성의 붉은 심장인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이 있어
인류는 자주의 평화의 새 아침을
맞으리라

(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류정실

정신병자의 미친 광대였다 해도
참을수 없다
제명된 다 산
로망한 늑대미치의 망언이었다 해도
참을수 없다

피에 주된 미제의 본색을
드림프, 네놈을 살려두고선
이 시각도 뭇속에 잠든 나의 아가
이 어머니의 애무에 모르는
별같은 그 눈동자를 지켜줄수
없음

주권국가의 《완전과피》
인민의 《결별》
은물의 피를 거꾸로 치솟게 하는
그 목연애
물시러지는 이 증오
사랑과 순정으로 부풀던
이 가슴에 분노의 불꽃이 끓는다

자식들이 행방의 전부에서
철부지 어린것의 정만까지도
장하게 여기는 이 엄마들이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배일을 위해선
수신도 불순도 서슴지 않고
천길물속도 두렵지 않은
조선의 너인들이다

오죽때까 무르익는 전야와
우리 아이들의 노레소리 웃음소리
평평한
악아소와 유치원 학교들...
이 땅의 행복을 일컫는 과거와
다는
불망나니 정애의 미친 망발

남마다 행복을 꾸미던
어머니들의 작은 바늘조차
네놈의 저주로운 상흔으로 날아들
시술후는 낯설이 되리라
이 나라 너인들의 하찮은 중오가
무적의 만두들에 제지되리라

오죽때까 무르익는 전야와
우리 아이들의 노레소리 웃음소리
평평한
악아소와 유치원 학교들...
이 땅의 행복을 일컫는 과거와
다는
불망나니 정애의 미친 망발

너를 낳은 네 어머니도
특별히 알았다

세상에 인간이란 승냥이를 낳은것을
두고
무덤속에서조차 지옥을 느끼리라
인류역사는 네놈의 이름에
저주의 악인을 박아
영원히 나쁜 매장하리라

(시) 들어내지라, 지구밖으로

문용필

지구가 물서리고있다
신성한 주권국가와 인민의
《완전과피》와 《결별》을 부르
것은
아주의 그 광태에

해트링크의 열쇠를 걸지키며
현대판 히틀러는
이 행성의 한복면을 활개치고있
나니

얼굴을 붉히라
평화와 정의의 연단이라 일컫는
유연의 따자를
미치광이 트림프에게 내어준
신사제비들이여

트림프의 늑거리 거수기가 되어준
평지는 만신불의 목덜미가
악기의 은화합에 재고 깃발하
도록
과초의 망명일대
하일 트림프를 쫓아내고있겠는가

동방조선국을 가리킨
그 피를손 손가락으로
캐일런 땅신들의 국경을
당신들의 도시와 마을을 가리키며
과피와 전법을 부르셨으니

전투하라, 미국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에게
대통령명지지를 쇠쥔 피악으로
하여
미치광이의 터럭손에
핵탄추를 쥐여준 피악중에 피악으로
하여

그래도 남과 열드려 두손을 쳐들
겠는가
악의 제국의 퍼수악에
아직도 활방을 지르고있겠는가
인류를 불바다에 잠그려 날뛰는
아주악에

《결별》과 《과피》 그것은
이 조선을 더는 어찌지 못하는
힘이 진한 야수의 마지막부름
마지막명령을 질러대는
한마디 늑대미치광이로 하여
수심익의 생명과 이 행성을
핵화파의 불바다속에 잠글수 없다

라민족을 전멸하고
은 지구를 과초의 병자로 만들려던
아드르 히틀러는 죽은것이 아니라
도날드 트림프로 변신하여
백악관의 인민의자에 벗어지 않아
있다

말쳐나사라 세계어
이 나라 2,500만의
자주적권위들과 어깨걸고 나서라
영원히 추를 행성을 위하여
트림프-악의 제국을 들어내지라
지구밖으로!
인류밖으로!

유연의 연하를 두드려며 기업용
드하고있다

《결별》과 《과피》 그것은
이 조선을 더는 어찌지 못하는
힘이 진한 야수의 마지막부름
마지막명령을 질러대는
한마디 늑대미치광이로 하여
수심익의 생명과 이 행성을
핵화파의 불바다속에 잠글수 없다

(시) 정의의 불길로써

김남호

용암이 미쳤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인민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어

장도가 굵다 지용된다
아이도 어른도
병사도 료동자도
피가 튀는 심장이다
중요의 용암이 뒤덮어먼저
지구를 통제로 뒤트는

1

2

3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민주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신정화 목가 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다음주에 공화국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10월 1일(일요일) 오전에 청춘거리 경기관에서 여의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유소년, 녀경기, 풍라도의 민족예술경기장에서는 씨름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한편 이날부터 풍수 1,2급 남, 녀경기, 풍라도의 풍수경기, 예술제 1급경기가 청춘거리 경기관에서, 프로레슬링 성인급 남, 녀경기가 평양

체육관에서 있게 된다. 10월 2일부터 풍라도민체육공원 지상올림픽에서는 지상초예이 성인급남녀경기, 정춘거리 수영경기에서는 수중제주풍수 1급경기가 시작된다.

배구 1,2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배구경기장에서, 학구 1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학구

경기관에서 10월 3일부터 진행 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체육단에서는 10월 5일부터 연식풍수 1급 남, 녀경기, 서산속구경기장에서는 10월 4일부터 풍수 성인급 남, 녀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저는 세신시 합성동에 살고있는 세쌍둥이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당중앙위원회와 세신시 당위원회 일꾼들의 소행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월 저의 집에 찾아온 도당위원회와 시장위원회 일꾼들은 세쌍둥이의 생활에서 사소한 예로도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학용품과 운동복, 편지시키는

조선인민의 강인한 정신력과 기상을 보여준 공연

우리 교예배우들 제1차 민스크국제교예축전에 금상 쟁취

대중심사상을 수여하였다. 벨라루시공화국 문화상은 조신의 교예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듯 때때로 교예공연을 벨라루시인민에게 보여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벨라루시공화국민족주지배인인 최교장은 경이한 조선의 교예배우들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풍광을 유데 없이 완전무결한 조선의 교예배우들 제1차 민스크국제교예축전에 축하하는 우리 나라 교예배우 한국명에게

혁신적인 일본새를 낳은 경쟁열풍

대동강구역상하수도관리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위생문화사업은 어느 단위에 서나 진행되고있다. 늘 해오는 일상적인 사업인것을 혁신적으로만들기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이 오면 공공건물에서 외장재를 칠하고 주변정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나니 위생문화사업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 위생문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위생문화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 주었다.

지 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
2017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일: 화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3일: 화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4일: 화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더욱
환
해
진
문
화
후
생
기
지

본사기자 주 령 본

